

# 상징과 정치:

##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분석\*

조 현 수 | 국민대학교

정치는 '미란다'와 '크레덴타'가 복합적인 역학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인간이 "원래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 정치적 동물은 특정한 상징 혹은 상징체계를 통해 서로의 연대를 표시한다. 나아가 정치현상의 본질은 권력관계이며, 이 권력관계는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인간의 합리성만으로 정치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간은 상징적 관념화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적 표현에는 상징적 함축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징의 의미, 사회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이 논의를 토대로 민주주의체제에서는 '방임과 개입'이라는 상징의 관점에서, 전체주의체제에서는 '통합과 배제'라는 상징의 관점에서 상징과 정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상징, 정치, 정당성, 합리성, 언어, 의식, 이미지, 권력, 사회통합, 민주주의, 전체주의

### I. 문제제기: 상징<sup>1)</sup>과 서구 합리성 비판

상징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지시하고, 인간이 상징 그 자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은 인간의 현실을 정돈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현실을 재구성하기까지 한다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B00005).

1) 이 글에서는 '상징'이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융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융에 따르면, 상징은 "알레고리도 세메이온(기호)도 아니다". 상징은 "상당 부분 의식을 초월하는 내용물에 대한 이미지"이다. 융(Jung 1964)을 참고. 그래서 상징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만 파악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특정한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자의 의미구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는 점에서 사회조직 및 정치과정의 형성 그리고 소통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에델만의 지적처럼 사람들은 고뇌와 보증의 원천들을 상징적 자극에서 찾으면서 이 자극들에 반응한다(Edelman 1964). 따라서 상징적 사고는 아이들이나 정신착란증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종류의 비합리적이며 망상적 사고가 아니다. 상징적 사고는 인간 존재 그 자체와 공존하며, 언어와 추론적 이성에 선행하며, 다른 인식수단을 가지고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심오한 양상들을 밝혀준다. 이미지와 상징은 인간의 마음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창조물이 아니다. 이것들은 어떤 필요성의 결과이며, 동시에 사회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Eliade 2007).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개인의 기억이나 집합의식에 잠재되어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질 때, 이것들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국가적 위기, 정치적 상징의 창출 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 수준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이다. 인간세계는 잠재적 의미를 항상 담지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해석양식으로서 상징은 “그 자체의 규칙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며, 가능성의 영역으로서의 잠재적 의미세계는 인간의식의 흐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주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구체화된다. 의미의 현실화과정, 즉 분화과정은 인간의식의 지향적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화양태로서 “유한한 의미세계”인 과학의 세계, 상식의 세계, 상징적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 과학의 세계에서 의미는 비판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반면에 상식적 세계의 의미는 무비판적이긴 하지만 기능적이다. 상식의 세계에서 인간이 특정한 경험에 주목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징적 세계의 의미는 의미의 궁극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정이입과 상상을 통해 어떤 대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두 세계와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Rasmussen 2001). 상징적 의미세계는 세계를 주체와 관련시키고자 한다. 상징적 세계는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상징세계 혹은 상징적 의미세계는 정의사회, 유토피아 건설에 대한 기대를 통해 기존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초월하려고 시도한다.

현대는 이미지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에 와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 원시사회 이래로 인간들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출해왔다. 그만큼 이미지로 각인되는 상징이 인간사와 함께 행보를 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 한갓 물리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우주에 살고 있다.

언어, 신화, 예술 및 종교는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상징의 그물을 짜고 있는 가지각색의 실이요, 인간경험의 엉클어진 거미줄이다. 사고와 경험에 있어서 인간의 진보는 모두 이 그물을 개량하고 강화한다”(Cassirer 2008, 56).

즉 인간은 “상징적 동물”로서 상징의 망 속에서 사유와 인식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뒤르켐 역시 ‘사회적 힘’의 관념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집합적 흥분”(collective effervescence)을 설명하면서 상징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적절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하나의 상징적 질서<sup>2)</sup>를 통해 표현되며, 상징들은 “개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 및 자신들이 그 사회와 가지는 모호하기는 하지만 친숙한 관계를 상상하는” 형식구조를 가진다(Durkheim 1995, 227).

그러나 이성, 과학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서구사상사, 즉 로고스<sup>3)</sup> 중심주의에 기반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는 서구의 인식론은 요컨대 상징 파괴의 역사이며, 데카르트의 이

- 
- 2) 여기서 상징적 질서는 특정한 사회집단 내의 개인들의 의식과 도덕관념 모두에 공통적인 기호, 신화, 관념, 신념의 집합적 표현을 의미한다.
- 3) “유태교와 같은 유일신 사상의 종교적·문화적 전통에서는 언어의 우위성으로 인해 신성한 존재에 대한 시각적 표현은 금기시 된다. 보이지 않는 절대적 존재에게서 애초에 들려온 것은 절대적 진리로서의 말씀이며, 그 보이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에 인간의 숨결을 이끄는 왜곡 행위, 즉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된다”(유평근·진평준 2005, 105). 여기서 말씀인 로고스는 유일신의 절대성을 보장해주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로고스는 절대형태, 혹은 이데아와 같은 것이 된다. 로고스는 가시적 형태와 대립되고, 가시적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플라톤주의 역시 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절대형태를 손상시킨 가시적 형태가 이를 통해 절대형태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엄격한 이원론은 일정 정도 완화된다. 그런데 로고스 개념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사상시킨 채 가시적인 세계를 지칭하는 말, 논리, 이성의 의미를 담지할 때, 사정은 역전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로고스적 동물이다’의 명제에서 인간의 인식 내에서 상상계, 비가시적인 세계가 배제될 때, 추론할 수 있는 진리,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옹호하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표시하는(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증주의) 새로운 로고스중심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로고스는 시각적 이미지와 연관을 맺게 된다. 이 경우에 시각은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며, 아는 것이 곧 힘’이라는 명제의 의미에서 시각이며, 이는 객체와 주체간의 문제가 설정되며, 주체가 객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곧 절대진리, 신성한 존재의 이름 하에서 금기시되었던 인간의 능력이 중심적인 위상을 점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제 로고스(이성)는 문명의 발전, 인식의 발전 역사의 발전 개념 등을 조직화하면서 파토스, 야만적 사고, 상징적 사유, 혹은 이미지적 사유 일반을 비합리적인 개념으로 치부해 버린다. 유평근·진평준(2005) 참고.

성중심주의, 데이비드 흄과 뉴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콩트의 실증주의<sup>4)</sup>는 이미지와 상상계를 환상 혹은 비합리성의 산물로 폄하하며, 이는 상징에 대한 부정적 사고, 부인 및 파괴로 이어진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이성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징이 지니는 의미를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려 한다.

정치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상징주의는 사회적 현상이자 동시에 개인적 현상이다. 상징은 사회조직의 과정에 본질적이며 정체의 작동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상징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며, 사회적 행동의 지침들을 규정해 준다(Elder and Cobb 1983, 113).

본 글에서는 다음의 사실을 규명하려 한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정치영역—민주주의체제와 전제주의체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어떠한 상징 및 상징체계들을 사용하여 그 체제들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립하였는지를 논의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먼저 상징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규명하고 나아가 정치 권력자—여기서는 히틀러—는 어떠한 상징적 소통구조를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려 한다.

## II. 상징의 의미 및 기능

### 1. 사회구성의 포괄적 원리

인간들의 경험세계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의미는 인정되지 않은 경향성을 보이며, 하나의 통일성 속에서 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합적 현상은 특히 상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의미세계에서 추출된 상징은 총체성을 구성하며, 이 총체성은 의미가 발생하는 하나의 순환적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상징은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인간의 상상력의 문제와 고리를 맺고 있다. 인간의 상상 역시 역사와 문화 그 자체의 경계를 넘나든다. 실재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러한 구성은

4) 오귀스트 콩트는 인간의식의 진보과정을 신학의 시대, 회의하는 이성의 시대인 형이상학의 시대 그리고 실증주의 승리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의미추구를 지시하고 있다. 요컨대, 상징이란 하나의 의미구성이며, 사회정치적 구성물로서의 상징이란 인간 욕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Brown 1968).

합리주의를 “현대인으로부터 신성한 힘이 있는 상징과 관념에 반응하는 능력을 빼앗아 버린 원흉”으로 규정하고 있는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상징은 모호하고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진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다. … 말이나 형상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의미 이상의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징성은 정확하게 정의되거나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측면이 완전히 설명되고 정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마음으로 하여금 상징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관념과 만나게 되곤 한다.”<sup>5)</sup> 그에 따르면, “잠재적 측면이야말로 우리들의 의식적 사고의 보이지 않는 뿌리”이며, 상징은 인간의 의식세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불분명한 어떤 것, 알려져 있지 않은 것, 혹은 숨겨져 있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상징은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있는 “아직 표현되지 않은 어떤 특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막연한 것, 미지의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정의할 수 없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 변함없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인간의 의식세계를 초월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Jung 1964, 23).

카시러 역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상징이 지니는 함축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성이란 말로써 인간사에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문화생활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형태들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하는 대신 “상징적 동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상징적 동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은 인간의 특정한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 즉 문명의 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인간 이성으로써 설명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징이나 상징체계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 이성으로써만 결코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은

5) 이에 관해선 융(Jung 2007, 20-21)을 참고.

6) 카시러의 인간과 상징에 대한 견해는 카시러(Cassirer 2008, 57)를 참고.

인간생활에 새로운 의미형성과 사회구조화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상징은 사회 조직과 소통과정에 본질적인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상징 그 자체에 의해 자신의 사람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현실의 질서를 규정하고 재구성한다(Firth 1973, 20). 요컨대, 상징은 대상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거나 그것으로부터 식별할 수도 없는 의미를 지시해 주기 위해 인간에 사용하는 어떤 대상이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상징이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부여되는 사물의 가치 내지 의미”인 것이다. 상징의 의미와 관련하여 또한 미첼(Mitchell)은 상징적 대상 자체에 대한 천부적인 어떤 특징에 대한 의미부여가 아니라 상징적 대상들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상징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상징주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대상에 의미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징적 대상은 대상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신념으로부터 의미를 파생시킨다. ... 상징은 귀속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인간의 행태에 대한 통제로서 작용한다”(Michell 1962, 123).

따라서 특정한 상징은 어떤 인간에 의해 의도되며,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상징은 인간들이 상징을 창조하며, 지식을 통하여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에 적응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징을 사용한다(Firth 1973, 427). 부연하면 상징은 인간 주체에 의한 구성물이자 반성을 위해 주어진다라는 점이다(Rasmussen 2001, 153).

지금까지의 상징에 대한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이성으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지시하기 위해 상징이 도입된다. 하지만 도입된 상징 혹은 상징체계가 단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상징은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 혹은 가치관 여하에 따라 채색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징의 의미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미드가 지적하였듯이 “상징화는 상징화가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맥락을 배제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대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Mead 1934, 78).

사회구성의 포괄적 원리로서의 상징과 관련하여 맑스 및 맑스주의 전통은 상징체계들의 논리구조와 그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상징생산물들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연결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지배문화는 전체 사회의 허구적 통합에 기여하는데 이를 통해 피지배계급을 탈정치화시키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끈다. 부연하

면 지배문화는 “지배도구로서의 상징”의 재생산을 통해 소통기능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은폐하면서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기존 질서 전체의 정당화에 이바지 하게 된다(Bourdieu 1995, 96-7).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정권의 독창성과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자 사회구성의 포괄적 체계인 상징들을 잘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월슨은 ‘새로운 자유’(New Freedom), 루즈벨트는 ‘뉴딜’(New Deal), 존슨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닉슨은 ‘새로운 미국의 혁명’(New American Revolution), 카터는 ‘새로운 건설’(New Foundation), 레이건은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상징들을 생산해 내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들이 ‘새로운’이라는 상징적 형용사를 내세우고 있는 데, 이는 이전의 시대와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정권의 신선함과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징들이 왜 필요하고 긴요한가? 엘더와 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식과 경험을 요약, 소화, 분류하려는 정신경제학적 인간의 욕구, 둘째, 소통의 욕구, 마지막으로 사람들 중에 구분이 되고 싶어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승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Elder and Cobb 1983, 31-33). 이러한 요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상징은 “총체적인 인간의 의미세계를 드러내주는 또 다른 총체성”으로 기능한다.

## 2. 상징체계로서의 언어와 권력

상징은 일정한 사회적 맥락을 요구하며, 이 요구는 언어를 통해 구조화된다. 미드(Mead 1934)에 따르면 인간의 상호작용에는 상징이 개입되며, 이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인간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그 의도와 의미를 해석하여 반응하며, 개인의 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행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집단이 개인에게 행위맥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행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도식적 총계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며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아는 “의미 있는 상징”으로서의 언어를 매개로 하는 소통과정, 즉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분명히 상징체계로서의 언어는 인간의식의 형성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기능을 행한다.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할 때, 텍스트가 담지하고 있는 언어들은 단지 사전적 차원에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사회적 상황, 경험, 이데올로기 그리고 심리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모호성 내지 다양성은 언어의 내재적 특징이며, 특히 정치적

언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정치가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의 갈등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체계로서의 언어의 의미는 언어사용자의 개념적인 틀, 이해관계, 편견, 오해, 가정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를 토대로 언어는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 내는 도구적 역할, 나아가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언어는 분명히 인간들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소통상의 오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언어가 정치적 언어 혹은 정치적 상징과 함께 사용될 때,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언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권력의 역동성을 반영하면서 채색되기 때문이다. 예델만이 재차 강조하였듯이 언어가 이성적 결론이나 합리적인 정치행위를 증진시키고자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언어는 대개 이성적 결론이나 합리적인 정치행위를 증진시키는 도구는 아닌 것이다(Edelman 2001, 78-89).

언어에 대한 이해가 이렇다고 한다면, 언어를 통한 소통관계는 일정한 권력관계를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권력관계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행위자와 제도에 의해 축적된 물질적 권력 혹은 상징적 권력에 의존한다. 주지하다시피 권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과 찬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에워싸는 것”이야말로 “권력에 도달하는 길”이다. 권력은 단지 폭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힘이라는 것이 경쟁과 불만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탱할 만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정의를 이룩하고자 하는 힘은 감정에 깊이 뿌리를 내리거나 감동과 열망, 도덕, 지혜로운 격언,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 집단 사이에 있는 합리화된 형태에 깊이 간직된 강력한 힘이여야 한다(Merriam 1964, 4장).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합리적 측면(크레텐다)과 비합리적 측면(미란다)을 움직일 수 있는 상징 혹은 상징체계들이 필요하다. 상징 혹은 상징체계들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 즉 상징적 폭력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계급은 정당한 상징폭력을 독점하기 위한 상징적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가장 적합한 사회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Bourdieu 1995, 97-98). 그런데 상징권력은 “주어진 것을 언어를 통해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며, 세계에 대한 기대를 확신시키거나 변형시키고, 그리하여 세계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과 같은 마술적 권력으로 “특수한 동원효과”에 의해 형성된다(Bourdieu 1995, 97-101). 덧붙이자면, 상징권력은 “비언표적 힘의 형태”로 상징체계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생산 및 재생산되는



장의 구조 자체에서와 같이 권력 행사자와 이 권력에 구속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규정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 상징권력의 생산 혹은 상징생산의 장은 “계급들 사이에서 상징투쟁이 전개되는 소우주”인 것이다.

### 3. 사회변화와 사회통합

상징은 사회정치적 변혁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Edelman 1964; Elder and Cobb 1983; Rasmussen 1974). 크레텐다와 미란다<sup>7)</sup>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정치적 행위는 집단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그 집단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표상을 생산, 재생산 혹은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상응하게 집단을 형성하거나 해체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상징이며, 사회변화 및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징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함축성” 때문이다. 상징적 함축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직관적인 객관적 파악이 불가능하고 항상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간들 곁에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무력함이라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일종의 무력함이 반대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즉 인간들로 하여금 상징적 재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행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부연하면, 일종의 무력감이 집단의식의 형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상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Rasmussen 2001, 146).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상징에 의해 촉발된 의식변혁은 종종 인간의 현실적 삶이 냉혹한 대립성, 즉 행복과 불행,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발생하며, 유토피아적 기대감과 결합함으로써 사회변혁 및 변혁과정에 기여한다.

마르크제(1964)는 기술사회에 관한 논의에서 욕구를 “진실된 욕구”와 “허위욕구”로 구분하면서 진실된 욕구란 사회와 개인 모두의 진정한 이해에 기여하는 욕구이며, 허위욕구는 사회통제를 위한 양태로서 기능하며 사회와 개인 모두를 소외시키는 욕구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구성물로서의 상징이 인간욕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상징은 허위욕구에 대한 반항과 진실된 욕구를 향한 열망 간의 긴장 속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상징은 결국 사회통합을 초래할 수 있는 “초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이트나 융의 지적처럼, 상징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규

7) 메리엄(Merriam 1964)을 참고.

정지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거나 "거의 알지 못하는 사물을 나타내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다. 즉 "상징은 상당 부분 의식을 초월하는 내용물에 대한 이미지"를 담지하고 있다. 상징의 이러한 특징이 결국 사회통합을 야기하는 초월적 기능을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초월적' 기능은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양극을 구성하면서 긴장 혹은 갈등관계를 이룰 때, 상징은 초월적 위상을 점하면서 이 양극의 긴장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 양극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융에 따르면, 이 초월성은 절대자나 신성한 존재의 전제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의 변화 및 이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상징은 통합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초월적 기능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다". "허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수학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적 요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으로 "본능적으로 비합리적인 특성을 지닌 이 기능은 우리의 의지에게 대극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준다. 여기서 상징은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통합되는 형상을 보이며, 그런 까닭에 이 두 개의 세계를 통합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4. 상징과 동원화

상징은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동원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Elder and Cobb 1983). "정치가 담화"(politics is talk)이고 이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획득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소통은 정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정치과정에서 전달자는 수신자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전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동시에 수신자 역시 전달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 혹은 정치과정에서 상징이 연관을 맺게 될 때,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수신자의 해석 여하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채색된다(Elder and Cobb 1983, 9-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으로서의 정치"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 및 상징체계들은 이 소통과정의 "화폐"인 것이다. 상징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는 사물의 가치 및 의미"로 정의할 경우, 상징체계로서의 화폐는 인간들에게 일정한 정향을 지시하려 한다. 미드(Mead 1934, 9장, 10장, 16장)는 "사회적 상징" 혹은 "의미있는 상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상징을 다양한 개인들이 홀로 혹은 집합적으로 의미를 귀속시키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도 다름 아닌 다양

한 개인들이 동일한 대상에 의미를 귀속시키는 과정인 상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의 상징이 “의미있는 상징”이 되기 위해서 상징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고, 이러한 선택이 정치와 연관되어 발생한다면, 상징은 “I”와 “Me”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일반화된 타자”<sup>8)</sup>(generalized Others)로서 동원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 혹은 정치권력이 지니는 이중적 성격, 즉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이 두 측면들은 “믿게 되고 찬미되는 일련의 사물들로 에워싸인 권력의 길”(Merriam 1964, 109)로서 동원화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정치적 동원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도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상징이 정치적 동원화에 성공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동기들의 동질성”이 아니라 이 동기들을 통합시켜주는 “정서적 감정의 공통성”(commonality)(Elder and Cobb 1983, 116)을 토대로 “선택적 지지”(Lipset and Laab 1979)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즉 상징적 동의는 상징이 지니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동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에 대한 상호적 의미부여와 공통적인 정서적 감정에 의존한다(Elder and Cobb 1983, 120).

## 5. 상징과 정당성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학적 현상으로서 정당성과 관련하여 막스 베버는 세 가지 유형의 정당성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유형은 곧 관습과 전통에 기반한 전통적 권위, 추종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개인적 호소를 하는 한 지도자의 능력을 통해 작동하는 카리스마적 권위 그리고 법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규칙을 토대로 기능하는 법적-합리적 권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논의를 발전시켜 비담(Beetham 1991)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권력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정당하다고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첫째, 권력은 확립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둘째, 이 규칙은 정부와 피치자의 공유된 믿음의 의미에서 정당화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당성은 피치자의 동의의 표현을 통

8) 미드에 따르면, 자아(self)는 “I”와 “me”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여기서 “I”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며, “me”는 어떤 사람 자신이 가정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조직화된 태도이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는 타자에 대한 태도가 “me”를 구성한다. “me”는 어떤 종류의 “I”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동 그 자체에 주어진 의무들에 직면하는 한에서 그렇다(Mead 1934, 173-178).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일반화된 타자” 개념은 정서적 감정의 공통성이라는 관점에서이다.

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무엇을 매개로 하여 충족될 수 있을까?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상징이 곧 “법치”이며,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도입되는 것이 “법치국가” 혹은 “인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for the people)이며, 세 번째 조건의 상징체계로는 “참여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라는 언표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상징들은 치자와 피치자를 합치시키면서 한 정체의 존속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스필드(Gusfield 1963, 171-172)는 정치과정에서 상징이 수행하는 기능을 두 개로 분류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징은 먼저 “응집의 상징”(symbol of cohesion)과 “분화의 상징”(symbol of different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응집의 상징은 “정부지지의 원천으로 사회의 공통적이고 공감적인 측면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이용되며, “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요소들과 정치제도들의 정당성을 위한 토대들에 호소한다”. 나아가 이 상징은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파벌들의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정부에 충성”을 동원화하고자 한다. 반면에 “분화의 상징”은 집단이나 개인들 사이의 구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중요한 정치적 차이를 나타내어 준다. 상징이 정당성과 연관이 될 경우에, 분화의 상징들보다는 응집의 상징들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분화의 상징은 이른바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다원주의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응집의 상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로서 분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성과 일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응집의 상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분화의 상징은 사회구성원들의 개성을 용인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가스필드가 상징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상징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통합의 정치와 구별짓기, 혹은 차이의 정치라는 이름하에 상호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정체나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조되어야 할 점은 상징이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화하고 이 동원화를 통해 지지 창출과 정치권력 혹은 권위에 대한 정당성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이 지지가 개인들의 엄격한 계산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러한 지지들이 상징이 지니는 정서적 감정의 토대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Muller 1970; Murphy 1973). 루소의 표현을 인용하여 다시 설명하자면,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일반의지”를 대변한다는 명제 하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일반의지”라는 포괄적인 상징성에 대해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권위의 정당성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 III. 정체와 상징: 상징구조 및 상징내용의 비교

#### 1. 민주주의와 상징: '방임'과 '개입'의 상징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상징적 관념화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이에 하나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 형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미지적 표현은 그저 순수한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매개자로 작용하며, 그 안에는 최초의 경험으로서의 "상징적 함축성"이 들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추상화과정을 겪지 않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안에서도 상징의 기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에서는 민주주의와 상징 및 상징체계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하려 한다. 민주주의 체제 일반은 어떠한 상징 및 상징체계를 동원하여 사회구성원과의 결속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공고하게 하는가? 이 고찰에서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유희가 지니는 상징성과 정치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적 혹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라는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체제에서 어떠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징은 정치적 동원, 정당성, 사회결속 등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상징을 통해 공공정책, 사회운동들은 다양한 집단,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에게 호소한다. 상징은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들을 통합시켜주는 정서적 감정의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운동과 정치적 동원에 중요한 정치적 상징은 정치적 정당성의 확립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머렐만(Merelman 1966, 551-552)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초기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이익을 할당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사회구성원들의 만족감은 상징을 통해 강화된다고 한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징은 정당성의 대안적 토대, 희열 그리고 만족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이 단지 상징으로만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문화 나아가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적 상징은 수많은 변용과정과 의식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문명사회에 집단적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인간의 정신구조의 중요한 구성요소와 더불어 인간의 사회생활의 원동력으로 기능한다(Jung 1964, 93).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징이 사회구성원들의 공감 내

지 동의를 불러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실재적인 공감(동의)”이/가 본질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안정적인 민주주의체제에서도 실재적인 공감(동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Prothro and Grigg 1960; Mann 1970; McClosky 1964). 달리 표현하면, 사회구성원들은 민주주의 원리들에 관한 추상적 진술들을 승인하고는 있지만 이 원리들이 특정한 용어로 형성될 경우에는 실재적인 공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렌스(Lawrence 1976)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차원에서 미국시민은 동등한 기회와 다수의 결정에 대한 소수의 자유로운 비판, 즉 평등과 자유라는 상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긍정적 동의가 존재하지만 이것에 부여된 실제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제한적 동의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징적 동의는 형성될 수 있으나 실재적 동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Elder and Cobb 1983, 133).

문화적 상징이 정치와 연관될 때, 이것은 한 공동체의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장의 논의주제는 민주주의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이들 체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징들이 생산되며, 이 상징들이 어떠한 소통구조를 통해 사회구성원을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언어적 상징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지배체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자유, 평등, 정의, 다원주의, 법치, 개인, (시민)사회, 국가 등 일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각기 상이한 민주주의지배구조에서 정부와 사회구성원, 집단과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설정에 있어 어떠한 상징들이 국내질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하는지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정치에서 상징은 중요한 상징적 이익을 초래한다. 사실상 정치에서 상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념들은 곧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상징을 토대로 체제는 그 존속성을 보장받기까지 한다. 부연하면, 상징이 수신자로부터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현상을 이념으로 이념을 이미지로 변형”시키는 상징은 사라지고 새로운 상징이 등장할 것이다. 전체주의와 상징의 절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예로 히틀러가 많이 사용하였던 “민족공동체”는 히틀러 자신의 고유한 이념이 아니었다. 이미 독일사회에서 이전에 많은 정당들이 사용하였던 단어이다. 그런데 히틀러에 와서 이 이념은 사회구성원들의 감정을 사로잡고 각인되었으며,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특정 이념이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수용자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수용과정에서 수용자의 감정적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가스필드(Gusfield

1963, 183)가 주장하였듯이 “우리는 상징적 제스처가 우리의 자긍심, 굴욕감, 명예심과 큰 관련이 있는 인간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다른 행동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징적 질서의 혼란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일축하는 것은 분석을 흐리게 하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렇듯 정치에서 상징은 중요한 상징적 이익을 초래한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상징간의 관계를 논의해보기로 하자.

민주주의는 각각의 개별적인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나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인민주권론”에 바탕한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demos)라는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평등의 본질인 “동일성”<sup>9)</sup>에 입각한 상징체계를 필요로 하며, 그런 까닭에 이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상징 혹은 상징체계들은 민주주의에서 통하지 않는다.<sup>10)</sup> 이 상징은 1864년 링컨(Lincoln)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하면서 좀 더 현대적인 의미를 부가하였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곧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상징체계였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상위 상징체계를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하위의 상징들을 생산해내었다.

첫째, 가난한 자와 불이익을 당하는 자에 의한 수탈지배체계

둘째, 위계조직과 특권보다는 동등한 기회와 개인적 장점에 기초한 업적사회

셋째, 사회적 불평등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복지와 재분배제도

넷째, 다수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지배체계

다섯째, 보통선거라는 경쟁적 투쟁을 통해 공직을 수행하는 체제

물론 이러한 하위의 상징체계들을 토대로 민주주의는 그 내용과 세부적인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동등한 기회와 개인적 장점에 기초한 사회” 건설에 주목하면서 ‘방어적’(자유) 민주주의가 대두하였다. 이 민주주의는 ‘방입의 미학’,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는 상징성을 창출해내는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이라는 상징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보다는 시민이 정부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이해하였다. 즉 방어적(자유) 민주주의의 관심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의 영역,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성불가침권이라는 상징을 창출해내는 데 있었다.

9)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입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동일성, 요컨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지배적일 경우에 비로소 형성된다. 칼 슈미트(Schmitt 1996) 참조.

10) 다원주의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치상대주의 역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동일성의 상징체계의 틀 내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입장은 곧 '자유'와 '국가는 필요악' 그리하여 "최소국가"라는 가치 혹은 상징체계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있어 상징은 일종의 "탈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정체가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결합하게 될 경우, "원자화되고 고립된" 자율적 개인의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국가는 자유방임의 역할 속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공고화하고, 그리하여 "최소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들은 18세기 말경에 '국가'의 상징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라는 상징체계가 등장하고 이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담 스미드의 "자연발생적 질서"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상징체계가 등장하였다. 이 상징은 오늘날 여전히 자본주의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유효한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들에 기초를 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복지와 재분배" 그리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축소" 사회, 그리하여 통합적 상징체계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적'(사회)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이 민주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출현한 것으로 루소(Rousseau 1913)의 민주주의 이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민주주의는 '자유'와 '국가의 필요악'이라는 상징(체계)을 비판하면서 사회구성원은 그들이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생활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일반의지"의 구현체로서 정치적 평등과 동시에 일정 정도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적(사회) 민주주의는 "참여사회", "참여민주주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상징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나아가 이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유럽사회 일반에서 "평등사회" 이상을 향한 "복지국가"라는 상징체계 속에서 "사회시장" 혹은 "사회민주주의 합의"라는 하위 상징체계들을 생산해내었다. 하지만 상징 혹은 상징체계가 힘의 역학관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징체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지적, 도덕적 지도"로 일컬어지는 "헤게모니"라는 상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람시는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논의함에 있어 독재/헤게모니, 정치사회/시민사회, 정치적, 법적 지배/지적, 도덕적 지도, 강제/자발적 동의라는 지평 속에서 자유주의 이념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체제에서의 경제의 상징적 우월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있어 언어는 "질서 있는 사실들의 다양한 형태"이며, 동시에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균형의 힘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민주주의 지배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를 분석하고자 사용한 상징체계인 "헤게모니"는 현실을 정치상



태가 아니라 운동상태로 파악하고자 하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이연숙 외 역 2005, 374-5).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사회민주주의가 도입하고 있는 상징은 '자유'에 대해 '평등'을, '국가의 필요악', 혹은 '소극적 국가'에 대해 '적극적 국가'인 '복지국가'라는 상징체계로써 정치체제 및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사회구성원의 동원화와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방어적(자유) 민주주의와 발전적 민주주의가 각각 지향하는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 두 체제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하위 상징으로써 그 체제의 정당성과 동원화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인민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공직의 획득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 이에 따르면, 선거는 재산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입각한 자유사회 혹은 평등사회실현은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의 상징성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계급에 의한 지배"체제를 공공히 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성에 주목하여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포괄적 상징체계를 만들어 낸다고 하겠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상징체계 속에는 또 다른 하위 상징체계들의 복합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인민민주주의의 사유구조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정치와 경제라는 상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라는 상징은 평등이라는 상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으로 응축되는 '정의사회'라는 상징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상징이 상징적 동의(공감)(으)로 기능한다.

## 2. 전체주의<sup>11)</sup>와 "통합과 배제"의 상징: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상징

하나의 상징 및 상징체계를 가지기 전에 인간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미지에 대한 하나의 비판으로서 이미지는 감수성과 감각을 자극시켜 정신적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이미지를 낳는 힘, 즉 상상력이 주어져 있

11)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주의는 파시즘(fascism)을 옮긴 말이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체제와 독일의 나치즘체제에 한정한다. 상징과 정치의 상호작용에 관한 한, 특히 독일의 나치체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의 성격상 전체주의의 성격규정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는 대상에 대한 지각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수동적인 기능만을 가진다고 보며, 상상력을 움직이는 동력을 자아와는 무관한 인간의 감각과 정념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지는 자아의 비판과 성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체 자신이 그 자신에게 낯선 존재, 즉 자아의 소외를 초래한다.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입장은 세계를 기쁨과 슬픔, 쾌/불쾌의 정서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그리하여 이미지가 주체, 자아를 소외시킬 때, 잘못된 확신과 믿음의 집단화현상이 발생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화가 발생한다(속죄양을 만드는 언론의 이미지, 레드 콤플렉스, 드라쿨라의 이미지 등).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체제는 인민주권의 원리라는 기본적 상징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근대적 입헌정치의 요구는 사실상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체에서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민주권론은 정기적 투표행위를 통해서만 작동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임지현·김용우 편 2007, 75).

일반적으로 전체주의에서 등장하는 상징 및 상징체계가 개체성보다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렇게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민주주의지배구조에서도 집단성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체주의 지배구조가 집단성의 상징을 상시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특징을 노출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 지배구조의 상징동원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사회결속의 결정적 국면에서 집단성을 강조하는 상징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전체주의에서 등장하는 상징형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전체주의체계가 지탱되는 상징적 방식을 검토하려 한다.

먼저 전체주의에서 도입되는 상징은 합리성, 진보, 자유, 평등 대신에 ‘반대특성’(anticharacter)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주의는 일반적으로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반개인주의, 반공산주의 등의 상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주의는 이러한 ‘반대특성’의 상징을 사용하면서 유기적 통일성과 “일체를 통한 강함”을 지닌 민족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또한 전체주의의 이상은 의무, 명예, 자기희생을 통한 ‘새로운 인간’ 유형을 이미지화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인간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초월적 지도자에게 맹목적 복종을 기꺼이 행한다. 젠틀레의 구호처럼, 전체주의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국가에 대항함이 없이, 국가의 밖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상징체계를 구사하고 있다.

전체주의에서 도입되는 상징 혹은 상징체계는 무엇보다도 “통합과 배제”의 이미지를 토대로 대단결을 모색하면서 체제의 정당성, 사회구성원들의 동원을 시도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체주의에서 지향하고 있는 상징 혹은 상징체계에 대한 아마도 가장 좋은

역사적 실례인 히틀러의 나치체제, 즉 ‘국가사회주의’의 상징구조들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주의의 상징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항상 두 개의 상징적 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곧 국가와 (시민)사회이다. 이 두 유형의 정체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지축을 토대로 상징체계들이 형성된다. 물론 인민민주주의에서는 하나의 축, 즉 국가만이 존재하고 국가가 상위 상징체계로 기능한다. 전체주의체제로서의 히틀러의 나치즘은 국가와 사회라는 두 지축을 하나의 새로운 범주 속으로 통합시킨다.<sup>12)</sup>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나치즘<sup>13)</sup>이라는 상징적 체계의 핵심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민족”(Volk)에 놓여 있으며, 나치즘의 상징적 지향점은 자연적 질서 혹은 신의 섭리에 의존하는 “자기 권능화”로서의 인종공동체 즉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였다. 나치즘에 있어 “민족공동체”는 실천 속에서 창조되고 구현되어야만 하는 ‘정치적 대기획’이었으며, “노골적인 권력”(naked power)<sup>14)</sup>의 상징체계였다. 히틀러의 카리스마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조작하였던 연출가, 괴벨스(Goebbels)는 베를린의 한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

“오늘 저녁은 계급과 신분, 신앙의 차이를 넘어서 전 독일민족이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를 영원히 부숴버리고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사상을 출범시키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임지현·김용우 편 2005, 191 재인용).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상징의 틀을 무시하고 도입된 “민족공동체”는 지배와 “박멸”에 바탕한 두 가지 적대적인 상징을 담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일민족, 혹은 독일인종(아리안 인종)과 반유대주의이다. 이 두 민족은 결코 상생할 수 없는 ‘적과 동지’라는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sup>15)</sup> 간단히 말해 히틀러의 “민족공동체” 담론에는 ‘폭력을 통한 박멸’이라는 상징성을 담지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자. “민족공동체” 개념은 나치즘에서만 나타난 고유한 상징체계인가? “민족공동

12) 이 부분에 관한 분석은 필자가 미하엘 빌트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까닭에 빌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체주의가 지니는 상징구조의 틀에 접목하려 한다. 임지현·김용우 편(2007, 71-84) 참조.

13) 나치즘의 상징인 히틀러에 대해서는 히틀러(Hitler 1998); 페스트(Fest 1998); 블록(Bullock 1991); 커쇼(Kershaw 1998) 등을 참조.

14) “노골적인 권력”이란 전통이나 피차자의 동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서 국내적으로는 폭정을,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통한 정복의 형태로 표출된다. 러셀(Russell 2003) 참조.

15) ‘적과 동지’ 개념에 관해서는 칼 슈미트(Schmitt 1996) 참조.

체” 개념은 나치체제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독일사회민주당(SPD)은 이 상징을 자본가계급에 대항하는 인민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하였던 반면에 정치적 우파 일반에서는 이 상징을 ‘통합’이 아닌 ‘배제’의 차원에서 이용하였다. 상징체계로서의 나치즘은 법적 규범과 규칙을 준거틀로 가지고 있는 국가를 폐기처분하고 그 대신에 “독일민족을 인종공동체”로,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를 “약탈자”라는 “공격적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나치즘은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민족의 적” 혹은 “독일민족의 인종적 적대자”로 간주하였다.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치즘의 존재근거를 표상하는 “민족공동체”는 경계짓기의 상징체계로서 두 가지 차원의 상징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내부의 적’이라는 상징이며, 둘째로는 ‘외부의 적’이라는 상징이다. 동시에 이 민족공동체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징구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곧 “지도자”(Frührer), “지도자원칙”(Führerprinzip) 그리고 “지도자국가”(Führerstaat)였다. 부연하면, 민족공동체는 민족의 구세주인 지도자에게 민족이 절대적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정치공동체라는 상징을 생산해내고 있다.

“정치적 기획”인 “민족공동체”라는 상징에 내재해 있는 통합과 배제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민족의 동지”(Volksgenosse)와 “민족이방인”(Volksfremde)라는 이분법적인 배타적 위계질서에 근거를 둔 경계짓기 정치이며, 그런 까닭에 배제의 정치가 전제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민족)통합의 정치인 것이다. 덧붙이자면 정치적, 사회적 대기획으로서 민족공동체는 “동일성과 힘, 주권의 실제적 경험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목적지향성으로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파괴와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종관의 확립을 통한 지배구조의 구축이었다고 하겠다.

#### IV. 맺음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계몽주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이성과 과학을 통해 설명하고 분석하면서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상징은 그 어떤 의미를 지닐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잠재적 의미가 항상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러한 세계이며, 인간의 합리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동시에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까

답에 상징은 그 외형적인 모습을 시대의 발전에 조응시키면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상징적 관념화를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사이에 그 어떤 형태를 부여하고, 이 형태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이미지적 표현은 그저 순수한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매개자로 작용하며, 그 안에는 최초의 경험으로서의 “상징적 함축성”이 들어 있다.

인간이 “원래 정치적 동물”이든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이든 간에 상징은 정치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현상의 본질은 권력관계이며, 이 권력관계는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인간의 합리성만으로 정치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이성 혹은 합리성이 지니는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인해 인간의 감성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상징세계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상징이 단지 하나의 비합리적인 사유체계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상징의 적극적 혹은 긍정적 역할을 수용하면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상징의 의미를 정의하고 상징이 행하는 사회적 기능 및 정당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토대로 본 글에서는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어떠한 언어적 상징 혹은 상징체계로서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화하고, 체제 및 권력을 정당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글에서는 민주주의체제에서는 ‘방임’과 ‘개입’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통합과 배제’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두 체제의 상징을 살펴보았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Edelman 1964; Elder and Cobb 1983)도 현실정치나 정책에 있어 상징이 미치는 의미를 입증해주고 있으며, 또한 심리적 차원에서의 연구(Mead 1934; Jung 1964) 역시 이 점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투고일 2010년 7월 26일

심사일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3일

## 참고문헌

-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편.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역. 2005.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파주: 들베개.
- 송태현. 2005. 『이미지와 상징』. 서울: 라이트하우스.
- 유평근·진평준. 2005. 『이미지』. 서울: 살림출판사.
- 임지현·김용우 편. 2007. 『대중독재 3』. 서울: 책세상.
- Beetham, 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Basingstoke: Macmillan.
- Bourdieu, Pierre 저. 정일준 역.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Language and symbolic power*). 서울: 새물결.
- Brown, N.O. 1968. *Love's Body*. New York: Vintage Books.
- Bullock, Alan. 1991. *Hitler und Stalin*. Berlin: Siedler Verlag.
- Cassirer, Ernst. 1944. *An Essay on Ma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최명관 역. 2008.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 Durkheim, E. 1995.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ans. Karen E. Fields. New York: Free Press.
- Elder, Charles D. and Cobb, Roger W. 1983. *The Political Uses of Symbols*. New York & London: Longman.
- Edelman, Murray. 1964.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_\_\_\_\_. 2001. *The Politics of Misin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t, Joahim. 1998. *Hitler. Eine Biographie*. Berlin: Ullstein.
- Firth, Raymond. 1973. *Symbols: Public and Priv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usfield, Joseph. 1963. *Symbolic Crusad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itler, Adolf 저. 서석연 역. 1998. 『나의 투쟁』 상, 하. 서울: 범우사
- Jung, Carl Gustav. 1964. *Man and His Symbols*. N.Y.: Doubleday.
- \_\_\_\_\_. 이윤기 역. 2007. 『인간과 상징』. 파주: 열린책들.
- Kershaw, Ian. 1998. *Hitler (1889-1936)*. Stuttgart: Deutschen Verlags-Anstalt.
- Lawrence, David. 1976. "Procedural Norms and Tolerance: A Reassess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March 70), 80-100.
- Lipset, Seymour and Raab, Earl. 1979. *The Politics of Un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nn, Michael. 1970. "The Social Cohesion of Liberal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June 35), 524-537.
- Marcuse, Herbert. 1964.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 McClosky, Herbert. 1964 "Consensus and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June 58), 361-379.
- Mead, George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riam, Charles. 1964. *Political Power*. New York: Collier.
- Merelman, Richard. 1966. "Learning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ember 60), 548-561.
- Eliade, Mircea 저. 이재실 역. 2007(6쇄). 『이미지와 상징: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 까치.
- Mitchell, William. 1962. *The American Polity*. New York: Free Press.
- Muller, Edward. 197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liefs in the Legitimacy of regime Structures."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ugust 14), 392-412.
- Murphy, Walter, Tanenhaus Joseph, and Kastner, Donald. 1973. "Public Evaluations of Constitutional Courts: Alternative Explanations." *Sage Professional Papers in Comparative Politics* 4, 1-45, Beverly Hills, Cal.: Sage.
- Prothro, James and Grigg, Charles. 1960.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Base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Journal of Politics* (May 22), 278-294.
- Rasmussen, D.M. 1974. *Symbol and Interpretation*. The Hague: Martinus Nijhoff.  
\_\_\_\_\_. 장석만 역. 2001(5쇄). 『상징과 해석』. 서울: 서광사.
- Rousseau, J. J. 1913. *The Social Contract* (1762). Trans. G.D.H. Cole. London: Dent.
- Russell, Bertrand 저. 안정효 역. 2003. 『권력』. 서울: 열린책들.
- Schmitt, Carl. 1996. Trans. Harvey Lomax.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

## Symbol and Politic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ymbol of the Democracy and the Fascism

Hyeon-Soo Joe | Kookmin University

Politics is a Area, in which Miranda and Credenda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complicated-dynamic way. If a man is considered as a political animal, he expresses mutual solidarity through a symbol or a symbolic system. Moreover because the essence of political phenomena is the relation of powers consisting of rational and irrational aspects, it can not be interpreted only with a human reason. Human beings understand this world and give its meanings through a symbolic conception. In this process the symbolic implication is comprehended in an image-representation. In this paper I have argued the meaning and the social function of symbol. On the basis of the argument, I have then analysed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symbol,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laissez faire and intervention*' in democracy and of 'integration and exclusion' in fascism.

**Keywords:** symbol, politics, legitimacy, rationality, language, consciousness, image, social integration, democracy, Fascism